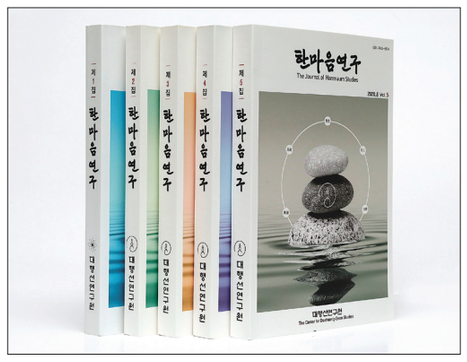
유식학·대행선 접점 모색하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5집 발간

기획논문 4편서 연구 선보여
유식 '자성신', '한마음' 비교
주인공, 유식관법 3단계 분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8월 31일 논문집인 〈한마음연구〉 5집을 발행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유식학과 대행선의 접점을 탐구한 기획논문 4편과 일반논문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실렸다.

먼저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유식사상과 대행선-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 주제를 통해 유식학의 '자성신'과 대행선사상의 '한마음'을 붓다의 본지인 공관(空觀)과 수행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했다.

안 교수는 〈유식30론송〉과 〈성유식론〉에 나타난 해석을 중심으로 '자성신'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두 사상에서 '자성신'과 '한마음'은 수행을 통해 증득하는 궁극의 경지이며 존재의 기반으로 보았다.

안 교수는 공관에 입각해서 볼 때, 유식학의 '자성신'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행선사상은 '한마음'을 '자성불' '주인공'과 같이 다양하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의 경지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했다.

안유숙 동국대 철학박사는 '유식관법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비교 고찰'을 통해 유가 5위의 자량위·가행위·견도위·수도위·구경위 가운데 견도위는 대행 선사의 1단계 주인공 관법, 수도위는 2단계 주인공 관법, 구경위는 3단계 주인공 관법과 배대하며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조명한다.

대행 선사의 1단계의 주인공 관법은 중생심·번뇌심·삼독심을 '끊고' 참 나를 얻는다기보다, 그것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참 나로 '되바꾼다'고 하였기에 지관쌍운의 유식관법에서 나타나는 영상이 임시적인 것임을 자각하는 단계로 파악했다. 2단계의 주인공 관법은 '참 나로서 주인공을 사무치게 알고 새로이 태어났지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생명과 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전체 생명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지관쌍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3단계의 모두와 하나 되는 주인공 관법은 제11지의 불지와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자신의 보리와 열반뿐만 아니라 공생(共生)·공심(共心)·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共食)의 무심의 보살행으로 귀결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이 지향하는 바와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안 박사는 유식관법과 주인공 관법의 원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명확하게 꿰뚫어서 삶 속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원성의 세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준 위덕대 연구교수는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의 주제 논문에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에 보이는 밀교적 소재를 검토했다. 특히 선무외삼장의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 밀교와 한마음사상을 비교하고, 대행선과 인도불교가 감당해 온 상이점과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확인했다.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은 '대행선의 주인공 화두명상'을 통해 대행선의 성격을 주인공 화두명상으로 규정하고, 대행선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들을 중국선종사와 한국간화선의 전통과 비교했다. 특히 주인공 개념, 주인공 화두와 의정의 사용용례, 간화선 수행단계, 사량 분별과 내려놓음, 간화와 지켜봄 등 간화선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결과적으로 인경 스님은 대행선의 성격을 '주인空 관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인공 화두' 명상 계열로 확장했으며 기존 간화선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단지 화두 참구의 스타일에 대해, 전통 간화선은 의정·의단을 강조한 번뇌에 대한 배타적이고 투쟁적 집중(憤心)이라면, 반면에 대행선 역시 의정을 중시하지만 상대적으로 번뇌의 내려놓음과 주인공에게 맡김으로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한 점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마음연구〉는 1년에 2회 발간되며, 연구논문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자료관-논문다운로드' 항목에서 보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과 우용호 나눔의집 원장이 9월 15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세미나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의료원 '위안부 할머니' 지원 나선다

동국대의료원 · 나눔의집 9월 15일 업무 협약

일산불교병원 등 산하기관 5곳
나눔의 집 '전담의료기관' 활동
할머니 · 직원들 진료비 등 감면

동국대의료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 지원에 나선다.

동국대의료원(원장 조성민)과 나눔의집(원장 우용호)는 9월 15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중강당에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할머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의료원과 나눔의집은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인 일산불교병원 · 일산불교한방병원 · 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 분당한방병원을 '나눔의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료비 30% 감면 △종합건강검진료 30% 감면 △상급 병실 우선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나눔의집 소속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도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우용호 나눔의집 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나눔의집에 계시는 할머니들 모두 90세를 넘기신 고령으로 건강문제가 가장 우선된다.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설장으로서 우선적 책무"라면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왜곡돼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동국대의료원과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이다. 불교계가 나눔의집을 운영한 지 28년이 됐고, 동국대의료원도 3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여지껏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의료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눔의집에 계시는 할머니들과 이를 케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보유 사찰들 추경 편성에 배려를"

원행 스님, 9월 16일 박양우 장관 예방서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 보유 사찰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원행 스님은 9월 16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교 문화재 보유 사찰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서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어려움을 감수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사찰들의 재정 상황은 많이 어렵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보·보물 등의 문화재지킴이 인력을 줄일 수는 없다. 현재 문화재관람료의 30% 예치금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데 이마저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종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향후 추경 편성에서 문화재 보유 사찰들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합장인사를 하고 있는 원행 스님과 박양우 장관의 모습.

이에 박양우 장관은 "현재 문화예술·체육·여행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방면을 통해 살피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화재 보유 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수도권 신도조직 네트워크 구축"

원행 스님, 16일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임명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최상원)는 9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제6대 집행부 임명장을 받고 발전 계획을 밝혔다.

직할교구는 7월 2일 총회에서 최상원 호압사 신도회장을 6대 직할교구 신도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덕원 엠앤에스(주) 회장, 원진 동우 특수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직할교구는 당초 이취임식을 조계사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임명장 수여와 함께 간단한 기자간담회로 변경해 진행됐다.

최 신임회장은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뒤 "올해는 직할교구신도회가 출범 10년을 맞는 해로 지난 10년간 자선골프대회, 일일 찻집 및 바자회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나눔과 불교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주력해왔다. 앞으로 직할교구 말사들만의 연합체를 넘어서 수도권 사찰을 두루 아우르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직장직능단체, 불자회와 사찰신도회의 네크워크 조직을 강조했다. 최 신임회장은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사찰신도회 및 각 직장직능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불자네트워크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통 법복을 맞춰입고, 매월 1회 정기법회를 사찰별로 순회하며 여는 등 구체적인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신임회장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불자회 준비조직 관계자들도 참석해 직할교구 신도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임명식에서 6대 직할교구 신도회 집행부에게 "매일 하루에 100원씩 1백만명이 동참하는 백만원력불사에 직할교구신도회가 적극 동참 해달라"며 "백만원력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과 불교발전에도 서로 협력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대 직할교구 신도회 집행부는 이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 5 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 수 2020.10.07(수) ~ 08(목)
전 시 2020.11.25(수) ~ 30(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민화 총 4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 격	유 의 사 항
불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3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출품료 30,000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4명	상금 각 300만원 상장 상패	
우수상	4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장려상	4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상패	
특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약간명	상장	
특별상		상장 및 기념패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및 원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및 출력.
- 접수 기간 : 10월 7일(수)~8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10월 8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 및 대리인의 접수증 확인 후 회수.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12월 1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 사이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1월 25~30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